

동서고속철도 연계 발전전략 수립

23일 용역착수 보고회

도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시·군 발전전략 수립에 나선다. 도는 23일 신관 소회의실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를 비롯해 춘천, 속초, 화천, 인제, 고성 등 관계 시·군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용역 과업수행 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시·군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용역은 총 사업비 6억8,600만원을 들여 내년 5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실시설계에 반영해 정부 개발계획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의 밑그림은 크게 역세권 개발과 실버타운 조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역세권 개발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철도 신설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역사 주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철도 개통 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에 대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동서고속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 후 미국의 실버타운을 방문해 조성 과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용인에 있는 은퇴자마을을 방문해 국내 성공 사례를 조사했다. 아울러 공주역과 오송역을 비롯해 국내외 신설 역사와 연계한 개발전략을 검토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는 7월 초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이성현기자 sunny@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1일 낮 12시30분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회장 간담회에 참석.

‘올림픽 도로’ 25개 구간 연말까지 개통

연말까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도로 개통이 계속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개통 예정인 강원지역 올림픽 관련 도로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10개 구간, 지자체 관리도로 15개 구간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 7조7,672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 382km를 계획해 건설 중이다. 각 도로의 상황에 따라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개통되거나 연말까지 전체 구간이 개통되도록 추진된다.

국도의 경우 6호선 횡성군 둔내면~강릉시 연곡면 간 7개 구간 개통이

모두 12월로 예정돼 있다. 세부 도로 사업은 2차로 개량이나 4차로 확장이다.

또 국도 59호선에서 진행되는 2차로 개량공사로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마평리~정선군 북평면 나전리~속암리 간 3개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함께 강원도의 진부~횡계IC 지방도 456호선, 평창군의 유천~수하 간 군도 12호선, 강릉시의 올림픽선수촌~경기장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도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간선도로과장은 “이용자들의 도로 불편 해소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도로 조기개통,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21일 낮 12시 30분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다.

알립니다

건설경제 '2017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모



함께
쌓으면
:
더 높이
올라갑니다

〈건설경제〉가 '2017 건설협력증진대상'을 공모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 상은 건설산업 주체들의 동반성장 역량과 의지를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입니다.

건설협력증진대상은 서류 심사와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치는 동시에 우수한 동반성장 정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진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상 기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최대 3점 및 시공능력평가액의 6%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벌점 '2점'의 감경 조치도 더해집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라잡이가 될 건설협력증진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2017 건설협력증진대상
 - 주최 : 건설경제신문, 건설외주협의회
 - 후원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크레더블
 - 응모 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공기업 및 종합, 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업체, 건설산업 분야 협회·단체
 - 응모 방식 : 자체 지원 또는 협력 상대 (일반·전문건설업체) 간 추천 중 택일
 - 시상 부문 :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응모 신청 및 심사
 - 1차 신청서 접수 : 2017년 6월5일~7월7일(오후 6시 마감)
 - 2차 심사서류 접수 : 2017년 7월10일~8월11일(오후 6시 마감)
 - 3차 발표심사 : 2017년 9~10월 중(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
 - 시상식 : 2017년 11월
 - 문의 : (02)3485-8446
- ※ 공모 안내서와 응모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건설경제〉 홈페이지(www.cnews.co.kr) 배너 참고